

이청용, 오늘부터 플트레이닝 훈련...8월말 대표팀 합류 '이상무' ▶8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이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허벅지 부상을 완전히 털어낸 이청용은 7월 31일부터 본격적인 플트레이닝에 합류한다. 프리시즌 준비는 다소 차질을 빚었으나 2017~2018시즌 개막까지 남은 2주를 잘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8월 말 시작될 국가대표팀 합류에도 전혀 문제없다.



이청용



홍행폭주 '군함도'의 그늘

개봉 첫날만에 관객 400만명 대박
극장 80% 독점 '스크린 CJ 잠점기'

영화 '군함도'가 개봉 첫 주말동안 전국 거의 모든 극장 상영관을 싸쓸이 하다가 피하며 흥행 질주를 펼쳤다. '폭주'라 불릴 만큼, 사전 기대치를 그대로 증명할 폭발적인 반응이다.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제작 외유내강)는 황정민과 소지섭, 송중기가 주연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을 그린 대작이다. 올해 한국영화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고, 감독과 주연배우들의 면면에서도 흥행이 예고된 작품이다.

개봉 첫날인 26일 하루에만 2027개 스크린에서 97만1556명(영화진흥위원회)을 동원, '역대 최대 오프닝 관객수' 기록을 세운 '군함도'는 첫 주말에도 기세가 계속됐다. 토요일인 29일 2019개 스크린에서 101만 5368명을 불러 모았고, 30일에도 50%대의 예매율을 유지해 이날까지 누적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관객이 늘고 화제가 더해질수록 네거티브 논란 역시 가열되고 있다. 단순히 전문적인 지지를 얻는 흥행대작에 따르는 '노이즈'라고만 여기길 수 없는 현상이다. 제작진으로서는 흥행 성과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군함도'는 한국영화와 극장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 2575개인 국내 극장 스크린 가운데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한 편이 하루에 2000개 이상 스크린을 독점하기는 '군함도'가 처음이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민병훈 영화감독은 SNS에 "독과점을 넘어 이젠 '광기'라고 지적했다. 극장에서 '군함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관객의 불만도 이어진다. 특히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CGV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배치된 '군함도' 상영 스케줄을 두고 '버스 배차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과점 논란이 정작 '군함도' 작품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가로막는다는 의견도 있다. 총제작비 270억여 원을 쏟아 부으면서 여름 흥행에 사활을 건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의 '기록'을 향한 노골적인 몰랑공세를 향한 비판이다. "지금 극장은 CJ 잠점기"라는 관객의 질타도 있다.

이에 더해 '군함도'를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까지 나왔다. 일본의 일부 매체가 "역사적 사실을 모티프로 했다"는 류승완 감독의 발언을 근거로, 영화가 다른 강제징용 조선인의 탈출 내용을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그대로 국내로 유입돼 확산했다.

제작진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개봉 전부터 여러 차례 "영화 안의 인물과 드라마틱한 상황은 만들어진 허구"라고 설명해왔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류승완 감독은 "최근 일본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전하면서 일본은 아직도 그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청산되지 않은 어두운 역사를 마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관객기사 14면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불면증·혼술·졸담배·성적부담...

니들이 '감독 스트레스'를 알아?

김경문 감독 입원 속 프로야구 사령탑들이 털어놓은 애환들

프로야구 감독은 대한민국에 단 10명밖에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며 전국 각지에서 시즌 144경기를 치르는 살인 일정을 버텨내야 한다. NC 김경문 감독은 28일 경기를 앞두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선수 가족까지 생각" ... '책임감' 강한 압박
잠 못 이루는 감독들, 술·수면유도제 의존
패한 날엔 경기 복기하면서 밤새우기 일쑤
양상문 감독 "팀 위한 결단, 쉬운 일 아냐"



NC 김경문 감독이 쓰러졌다. 28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kt전을 앞두고 급체 증세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결국 kt와의 주말 3연전은 김평호 수석코치가 선수단을 이끌었다. 구단 관계자는 30일 "머칠 안색이 안 좋긴 했는데 그날 유독 힘드신 것 같았다"며 "현재 증상은 많이 호전됐고 식사도 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입원을 하셨다. (퇴원 여부는) 월요일(31일)에 검사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던 김 감독의 입원 소식이 야구계가 술렁였다. 관계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이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야구 감독은 해군 제독,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함께 남자라면 꼭 해봐야할 3대 직업으로 꼽힌다. 매력적인 직업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 김 감독도 입버릇처럼 "어쩌다보니 감독이 됐고, 운이 좋게 오래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야구가 어렵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상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김 감독뿐 아니다. 다른 프로야구 감독들도 화려한 삶이면에 남모를 애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A 감독은 "선수는 자신의 성적, 코치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의 성적만 걱정하면 되지만 감독은 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승패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감독들의 삶이다. 오늘 이겨도 내일 경기 걱정에 잠 못 드는 일이 많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감독들은 경기에 패한 날이면 밤새 뜯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다. 숙면을 하지 못하다보니 수면유도제를 찾는 감독,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억지로 잠을 청하는 감독도 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기도 쉽지 않다. B 감독은 "경기에 지면 속 편하게 술 먹으려 왔다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편히 앉아 있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구석진 곳에서 마시거나 남들 눈에 띄지 않는 방이 있는 가게를 옮겨놓기도 한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호텔방에서 혼자 마시곤 한다"고 고백했다. 술을 마시지 못하면 담배를 피운다. kt 김진욱 감독은 "상위권에 있다고 편할 수 없고, 하위권에 있으면 더더욱 그렇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번엔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지만 경기를 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담배를 꺼내들었다"고 털어놓았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프로야구 관권기사 2·3·4·6면
수원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생명보험업자 상비법 제 2017-02277호(2017.05.23)

개수 제한과 부족한 보장금액의 아쉬움을 덜어드릴 새로운 차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나생명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NAVER 라이나생명다이렉트

개수의 부담을 줄인 보장! 든든한 보장금액!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욱 새롭게!
라이나생명(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 개수 제한 없이! 재료구분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도제(세라믹), 테세라 개량 13만원, 레진 등 개량 5만원, 아말감 개량 1만원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씌우는 크라운 치료 보장
- 크라운치료 20만원 (유치, 영구치 각각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도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보장
- 임플란트 70만원, 브릿지 35만원 / 틀니 연 1회 70만원(특약 가입 시)
- 특약: 0세~55세 가입가능. 가입나이 56세~70세 고객은 주계약만 가입가능하며, 임플란트, 틀니는 50만원, 브릿지는 25만원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 영구치 발치 1개당,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틀니: 보철물당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영구치 발거 후 그 지리에 치료 시 정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꾸준히 받아야 하는 소액치료는 더욱 새롭게!
- 개수 제한 없는 신경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잇몸치료 / 스케일링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총차나 잇몸 치료 시 정액 보장
- 잇몸질환치료 및 스케일링 : 국민건강보험 적용 또는 의료급여형에 한함

모든 보장 받아도 만가지급금 50만원 지급(만기 생존 시)
0세~70세까지 온가족 가입 가능(특약은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예시표]

| 40세 기준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 31,000원 | 28,200원 |
| (무)보철치료보장액(프리미엄) | 4,480원 | 2,780원 |
| 합계 | 35,480원 | 28,980원 |

* 기준: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액(프리미엄) 2,000만원
보험기간: 10년간, 납입기간: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 가입형, 특약(임플란트)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주계약 0세~70세 / 특약 0세~55세 / 가입나이, 생애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 가능

[해지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425,760원 | 0원 | 0.0% |
| 3년 | 1,277,280원 | 4,529원 | 0.3% |
| 5년 | 2,128,800원 | 278,287원 | 13.0% |
| 10년 | 4,257,600원 | 500,000원 | 11.7% |

* 기준: 40세 남자, 10년 만기,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 가입형, 특약(임플란트)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액(프리미엄) 2,000만원
* 중도 해지 시 해당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 위 보장 내용은 차이유(신속채, 최우선환(인정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에 한해 100% 보장됩니다 (다량의 연세/건강악진 악관 참조)

080-059-9000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급 전화하세요

*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 본 상품은 10년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전 기간 월납, 주계약은 만가지급금,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또는 전보보통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전지 사항을 아시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일일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로법에 따라 예금보장액이 보호되며 보험회사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